

디지털 통(通)

July 07

1. NIA News

-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

2. 원장동정

- 한국-우즈베키스탄 ICT의 날 개최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제 1회 데이터 데이(D-day) 개최

3. ICT 보고서

4. 포토앨범

- 제 27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 곳곳에서 진행

5. 7월 NIA 행사

6. 디지털통 다시보기



각 국의 공공행정분야 관련 장관들이 'UN 공공행정포럼'에서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우리 원은 안전행정부와 함께 201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2010년, 2012년에 이어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14년 6월 23일(한국 시간 24일) 유엔이 발표한 2014년 전자정부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발전지수 및 온라인 참여지수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여 종합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전자정부평가는 2003년부터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 수준을 비교하여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촉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3회 연속 1위를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 전자정부국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 국가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 호주 2위, 싱가포르 3위, 프랑스 4위, 네덜란드 5위, 일본 6위, 미국이 7위를 차지하였고, **온라인 참여지수**에서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 1위, 우루과이 2위, 프랑스, 일본 및 영국이 공동 3위, 호주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수상한 것은 정부3.0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정책' 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유엔이 2014년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Open Government Data)'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적극 추진해온 '정부 3.0'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를 연계·통합함으로써 출생·취업·이사·사망 등 주요 민원을 해당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논스톱으로 처리(생활민원일괄서비스)하고 있으며, - 「생활불편 민원신고 서비스」, 「SOS 국민안심 서비스」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대국민서비스와 SNS 등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 등 쌍방향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유엔에서 제시한 전자정부평가 6대 주안점과 부합하고 하고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엔이 제시한 6대 평가 주안점(The Six e-Government Initiatives)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범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 2. 이용 확대(Expanding Usage)
- 3. 온라인 참여(E-participation)
- 4. 공공데이터 개방(Open Government Data)
- 5. 디지털 격차와 취약계층(Digital Divide and Vulnerable Group)
- 6. 다채널 서비스 제공(Multi-Channel Service Delivery)

전자정부 발전지수

| 순위 | 2008년 | | 2010년 | | 2012년 | | 2014년 | |
|----|-------|--------|-------|--------|-------|--------|-------|--------|
| | 국가명 | 지수 | 국가명 | 지수 | 국가명 | 지수 | 국가명 | 지수 |
| 1 | 스웨덴 | 0.9157 | 대한민국 | 0.8785 | 대한민국 | 0.9283 | 대한민국 | 0.9462 |
| 2 | 덴마크 | 0.9134 | 미국 | 0.8510 | 네덜란드 | 0.9125 | 호주 | 0.9103 |
| 3 | 노르웨이 | 0.8921 | 캐나다 | 0.8448 | 영국 | 0.8960 | 싱가포르 | 0.9076 |
| 4 | 미국 | 0.8644 | 영국 | 0.8147 | 덴마크 | 0.8889 | 프랑스 | 0.8938 |
| 5 | 네덜란드 | 0.8631 | 네덜란드 | 0.8097 | 미국 | 0.8687 | 네덜란드 | 0.8897 |
| 6 | 대한민국 | 0.8317 | 노르웨이 | 0.8020 | 프랑스 | 0.8635 | 일본 | 0.8874 |
| 7 | 캐나다 | 0.8172 | 덴마크 | 0.7872 | 스웨덴 | 0.8599 | 미국 | 0.8748 |

온라인 참여지수

| 순위 | 2008년 | | 2010년 | | 2012년 | | 2014년 | |
|----|-------|--------|----------|--------|----------------------------|--------|---------------|--------|
| | 국가명 | 지수 | 국가명 | 지수 | 국가명 | 지수 | 국가명 | 지수 |
| 1 | 미국 | 1.000 | 대한민국 | 1.0000 | 대한민국 네덜란드 | 1.0000 | 대한민국 네덜란드 | 1.0000 |
| 2 | 대한민국 | 0.9773 | 호주 | 0.9143 |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 0.9474 | 우루과이 | 0.9804 |
| 3 | 덴마크 | 0.9318 | 스페링 | 0.8286 | 미국, 영국 | 0.9211 | 프랑스 일본, 영국 | 0.9608 |
| 4 | 프랑스 | 0.9318 | 뉴질랜드, 영국 | 0.7714 | 이스라엘 | 0.8947 | 호주, 칠레 | 0.9412 |
| 5 | 호주 | 0.8864 | - | - | 호주, 에스토니아 독일 | 0.7632 | 미국 | 0.9216 |
| 6 | 뉴질랜드 | 0.7955 | 일본 미국 | 0.7571 | 콜롬비아 핀란드,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 0.7368 | 싱가포르 | 0.9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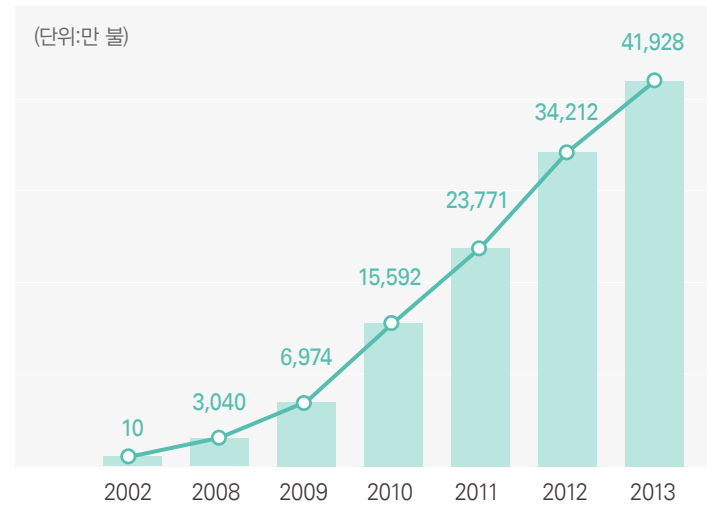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한류를 확산하겠습니다!

2002년 10만불에서 2013년 41,928만불로 전자정부 해외 진출 확대

전자정부 기반 선진행정시스템의 세계화를 통한 행정한류 확산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연평균 약 70%의 수출액 증가

(단위:만 불)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로 정부 3.0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정부 3.0

국민편의 제고

기관간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통합을 확대하여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기관간 정보공유 확대추진

스마트정부 구현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제 구축, 스마트워크 확대, 영상회의 활성화 추진

전자정부

정보보호/보안 강화

스마트폰 기반 대국민 서비스 및 CCTV통합관제센터 확대 및 보안강화 추진

안전한 국민생활 구현

주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등급제 확산 등 정보보호 체계 강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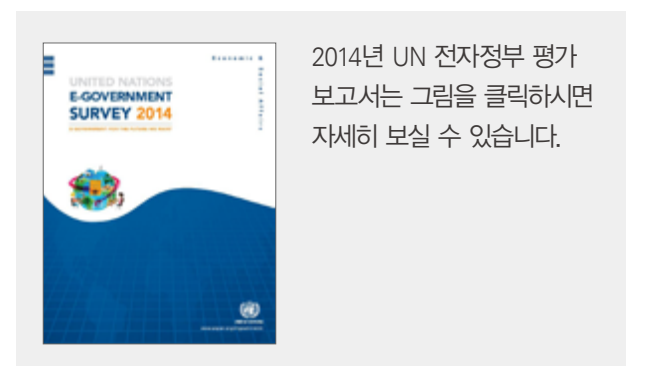
빅데이터·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우리 원은 3회 연속 1위 달성을 계기로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을 행정 내부 효율화,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구축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관 간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통합을 확대하여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제 구축, 스마트 워크 확대, 영상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스마트 정부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등급제 확대, 시스템 연계·통합에 따른 정보보호 등 안전한 전자정부 관리체계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스마트폰 기반 대국민서비스 및 CCTV통합관제센터 확대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연이어 1위를 차지한 결과,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영국, 스웨덴)과 주요 국제기구(WB, ADB, IDB)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한 교류 및 협력 요청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은 문화한류를 넘어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한류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 UN 전자정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평가 기관 : UN DESA(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

평가 연혁 : 2003~2005년 매년 평가, 2008년 이후 격년 평가

평가 대상 : 유엔 회원국(200여 개국)

평가 목적 : 성공적인 전자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비교·평가를 통해 벤치마킹을 하고 경험과 노하우 공유

| 평가지수 | 부문 | 구성요소 |
|------------|--------------------------|---|
| 전자정부 발전지수 | 1단계 착수 (Emerg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법령, 문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 타 부처, 소속기관, 산하기관과 링크 정부 부처의 새 소식 및 정보목록 제공 |
| | 2단계 발전 (Enhance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에게 발전된 일방향 및 쌍방향 온라인 서비스 제공 민원신청 양식, 비디오 서비스와 다국어 서비스 제공 부분적으로 비온라인 양식이나 개인정보를 우편 등으로 제공받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 |
| | 3단계 전자거래 (Transaction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들이 정부정책, 프로그램, 법령 등을 온라인으로 요청하고 접수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 제공 거래의 완료를 위해 신분 증명을 위한 전자인증 양식 제공 전자투표, 양식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온라인 세금납부 서비스 증명/면허/허가 신청 서비스 제공 |
| | 4단계 통합처리 (Connecte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Web 2.0 등을 이용,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수행 다부처 통합 서비스,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책 의사결정에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 |
| 온라인 서비스 수준 |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이용자수, 전화회선수, 이동전화가입건수, 유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무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
| | 인적자본 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 문해율, 취학율, 학교교육 예상년수, 평균 학교교육 년수 |
| | 온라인 정보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각종 정보 제공 여부 정책 자료의 온라인 제공, 온라인 정책토론포럼 일정 공지 등 |
| 온라인 참여지수 | 온라인 정책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들의 의견제시 및 피드백 제공 여부 온라인 여론조사, 채팅 룸, 인스턴트 메시지, 블로그 등 |
| | 온라인 정책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정책 의사결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지 여부 온라인 토론 포럼, 온라인 진정, 온라인 투표 등 |

2014년 주요 국가별 평가결과(순위)

전자정부 발전지수

순위 상승 : 호주(12위→2위), 싱가포르(10위→3위), 일본(18위→6위)

순위 하락 : 네덜란드(2위→5위), 영국(3위→8위), 덴마크(4위→17위)

| 순위 | 2008년 | | 2010년 | | 2012년 | | 2014년 | |
|----|-------|--------|-------|--------|-------|--------|-------|--------|
| | 국가명 | 지수 | 국가명 | 지수 | 국가명 | 지수 | 국가명 | 지수 |
| 1 | 스웨덴 | 0.9157 | 대한민국 | 0.8785 | 대한민국 | 0.9283 | 대한민국 | 0.9462 |
| 2 | 덴마크 | 0.9134 | 미국 | 0.8510 | 네덜란드 | 0.9125 | 호주 | 0.9103 |
| 3 | 노르웨이 | 0.8921 | 캐나다 | 0.8448 | 영국 | 0.8960 | 싱가포르 | 0.9076 |
| 4 | 미국 | 0.8644 | 영국 | 0.8147 | 덴마크 | 0.8889 | 프랑스 | 0.8938 |
| 5 | 네덜란드 | 0.8631 | 네덜란드 | 0.8097 | 미국 | 0.8687 | 네덜란드 | 0.8897 |
| 6 | 대한민국 | 0.8317 | 노르웨이 | 0.8020 | 프랑스 | 0.8635 | 일본 | 0.8874 |
| 7 | 캐나다 | 0.8172 | 덴마크 | 0.7872 | 스웨덴 | 0.8599 | 미국 | 0.8748 |

온라인 참여지수

공동 순위 인정을 통해 10개국에 6위 안에 랭크

※ 신규진입(우루과이, 프랑스, 칠레), 탈락(카자흐스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독일, UAE, 콜롬비아, 필란드)

| 순위 | 2008년 | | 2010년 | | 2012년 | | 2014년 | |
|----|-------|--------|----------|--------|---------------------------|--------|---------------|--------|
| | 국가명 | 지수 | 국가명 | 지수 | 국가명 | 지수 | 국가명 | 지수 |
| 1 | 미국 | 1.000 | 대한민국 | 1.0000 | 대한민국 네덜란드 | 1.0000 | 대한민국 네덜란드 | 1.0000 |
| 2 | 대한민국 | 0.9773 | 호주 | 0.9143 |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 0.9474 | 우루과이 | 0.9804 |
| 3 | 덴마크 | 0.9318 | 스페링 | 0.8286 | 미국, 영국 | 0.9211 | 프랑스 일본, 영국 | 0.9608 |
| 4 | 프랑스 | 0.9318 | 뉴질랜드, 영국 | 0.7714 | 이스라엘 | 0.8947 | 호주, 칠레 | 0.9412 |
| 5 | 호주 | 0.8864 | - | - | 호주, 에스토니아 독일 | 0.7632 | 미국 | 0.9216 |
| 6 | 뉴질랜드 | 0.7955 | 일본 미국 | 0.7571 | 콜롬비아 핀란드, 일본 아랍에미리트 | 0.7368 | 싱가포르 | 0.9020 |



2014년 지표별 평가방법 및 결과

전자정부 발전지수

1점 만점으로, 온라인서비스 등 하위 지수에 각각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온라인서비스 \times 1/3) + (정보통신인프라/3) + (인적자본/3)$$

| 구분 | 온라인서비스 | 정보통신인프라 | 인적자본 | 전자정부발전지수 |
|-------------|------------------|------------------|------------------|------------------|
| 2008 | 0.82 (6위) | 0.69 (10위) | 0.98 (10위) | 0.82 (6위) |
| 2010 | 1.00 (1위) | 0.64 (13위) | 0.99 (7위) | 0.87 (1위) |
| 2012 | 1.00 (1위) | 0.83 (7위) | 0.94 (6위) | 0.92 (1위) |
| 2014 | 0.97 (3위) | 0.93 (2위) | 0.92 (6위) | 0.94 (1위) |

01. 온라인서비스 지수

조사대상 : 국가별 대표포털, 보건, 사회복지, 교육, 노동, 재정, 외교, 환경 관련 주무부처 웹 사이트

산정방법 : 해당서비스 제공여부를 평가하여 1점 만점으로 표준화

$$\frac{(\text{해당국가 원 점수} - \text{조사대상 국가 중 최소 값})}{(\text{조사대상 국가 중 최대 값} - \text{조사대상 국가 중 최소 값})}$$

평가결과 : 우리나라는 UN이 설정한 온라인서비스 성숙도 모델 4단계 전체를 종합하여 세계 3위 차지

※ 1위 프랑스 → 2위 싱가포르 → **3위 대한민국** → 4위 일본 → 5위 미국

| 구분 | 1단계 (Emerging) | 2단계 (Enhanced) | 3단계 (Transactional) | 4단계 (Connected) | 전체 | 지수(순위) |
|-------------|----------------|----------------|---------------------|-----------------|-----|------------------|
| 2008 | 100% | 93% | 76% | 50% | 59% | 0.82 (6위) |
| 2010 | 97% | 91% | 66% | 62% | 78% | 1.00 (1위) |
| 2012 | 100% | 79% | 92% | 87% | 87% | 1.00 (1위) |
| 2014 | 100% | 82% | 77% | 88% | | 0.97 (3위) |

* 온라인 서비스 성숙도 모델은 2010년부터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02.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자료수집 :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가별 데이터를 활용

산정방법 : 5개 항목별 동일한 가중치 부여

$$1/5(\text{인터넷 이용자 지표}) + 1/5(\text{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 지표}) + 1/5(\text{유선전화 회선수 지표}) + 1/5(\text{이동전화 가입건수 지표}) + 1/5(\text{무선초고속인터넷가입건수 지표})$$

평가결과 : 2012년 7위에서 2014년 세계 2위로 5단계 상승

※ 1위 모나코 → **2위 대한민국** → 3위 스웨덴 → 4위 싱가포르 → 5위 덴마크 → 6위 룩셈부르크 → 7위 핀란드 → 8위 아일랜드 → 9위 일본 → 10위 영국

| 구분 | PC 보급대수 | 인터넷 이용자수 | 유선전화 회선수 | 이동전화 가입자수 | 유선초고속 인터넷가입자수 | 유선인터넷 가입자수 | 무선초고속 인터넷가입자수 | 지수(순위) |
|-------------|------------|-------------|-------------|---------------|---------------|-------------|---------------|------------------|
| 2008 | 53.1 (18위) | 71.1 (7위) | 55.9 (13위) | 83.70 (46위) | 29.2 (5위) | - | - | 0.82 (6위) |
| 2010 | 58.1 (17위) | 77.8 (7위) | 44.3 (24위) | 94.7 (65위) | 32.1 (7위) | - | - | 1.00 (1위) |
| 2012 | - | 83.70 (10위) | 59.24 (5위) | 105.36 (73위) | 36.63 (6위) | 34.08 (12위) | - | 1.00 (1위) |
| 2014 | - | 84.1 | 61.4 | 109.43 | 37.25 | - | 105.14 | 0.97 (3위) |

* 평가 시기별로 지표 변화 : 2012년 PC보급대수 삭제 및 유선인터넷가입자수 지표 신설, 2014년 유선인터넷가입자수 삭제하고 무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지표 신설

03. 인적자본 지수

자료수집 : UNESCO와 UNDP의 인적역량 보고서와 데이터 활용

산정방법 : 4개 항목에 대하여 가중치 부여

$$1/4(\text{성인 문해율 지표}) + 1/4(\text{취학률 지표}) + 1/4(\text{학교 교육 예상 연수}) + 1/4(\text{평균 학교 교육 연수})$$

평가결과 : 2012년과 동일한 세계 6위 차지

※ 1위 뉴질랜드 → 2위 호주 → 3위 아일랜드 → 4위 미국 → 5위 노르웨이 → **6위 대한민국** → 7위 네덜란드 → 8위 아일랜드 → 9위 일본 → 10위 영국

| 구분 | 성인 문해율 | 취학률 | 학교교육 예상연수 | 평균 학교교육 연수 | 지수(순위) |
|-------------|-------------|---------------|---------------|------------------|--------------------|
| 2008 | 99.0% (18위) | 97.24% (11위) | - | - | 0.9840 (8위) |
| 2010 | 99.0% (19위) | 99.88% (7위) | - | - | 0.9929 (7위) |
| 2012 | 99.0 (22위) | 100.28% (6위) | - | - | 0.9494(6위) |
| 2014 | 99% | 101.5% | 17.16년 | 0.94 (1위) | 0.9273 (6위) |



온라인 참여지수

평가대상 : 국가별 대표포털, 보건, 사회복지, 교육, 노동, 재정, 외교, 환경 관련 주무부처 웹 사이트

※ 우리나라는 온라인 참여 대표포털인 '국민신문고' 위주로 평가

산정방법 : 해당서비스 제공여부를 평가하여 1점 만점으로 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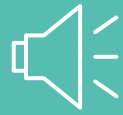
(해당국가 원 점수 - 조사대상 국가 중 최소 값)
/ (조사대상 국가 중 최대 값 - 조사대상 국가 중 최소 값)

평가내용

| 부문 | 내용 |
|------------------------------|--|
| 정보 제공 (e-inform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각종 정보 제공 여부 • 정책 자료의 온라인 제공, 온라인 정책토론포럼 일정 공지 등 |
| 정책 참여 (e-consult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의견제시 및 피드백 제공 여부 • 온라인 여론조사, 채팅 룸, 인스턴트 메시지, 블로그 등 |
| 정책 결정 (e-decision mak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책 의사결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지 여부 • 온라인 토론 포럼, 온라인 진정, 온라인 투표 등 |

평가결과 : 우리나라는 전체 193개국 중 연속 3회 1위로 평가되어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 기회 보장에도 세계 최선도국임을 입증

※ 1위 대한민국, 네덜란드 → 2위 우루과이 → 3위 프랑스, 일본, 영국 → 4위 호주



'한국-우주베키스탄 ICT의 날' 개최

장광수 원장은 16일 우주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벡 ICT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산업과 사회 이슈에 접목하는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즈벡 정보통신위원회 크루시드 미르자키도프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우즈벡의 ICT·과학기술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날 타슈켄트 IBC에서는 한국과 우즈벡의 ICT 융합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도 진행되어, 양국의 사업 및 사례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습니다.

장광수 원장은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드넓은 세계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장광수 원장은 24일 정부청사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주요 공공데이터 보유기관 및 ICT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마련된 '2014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4년도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주요 점검사항, 관리방법, 성과 평가 방식, 우수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정보화진흥원은 다음달부터 2014년도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69개 사업을 본격 추진해, 전체 사업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광수 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민간 수요,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된다면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높여 사회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 1회 데이터 데이(D-day) 개최

장광수 원장은 29일 '제 1회 데이터 데이(D-day)'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빅데이터·오픈데이터(정부3.0) 등 '데이터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계와 함께 국내 데이터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Stat-up 창업 붐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올해를 국내 데이터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빅데이터 관련 공동협력을 위해 산·학·연의 10개 유관 기관 및 단체가 모여 '한국빅데이터연합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이번달간 일반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공모한 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의 우수작에 대한 시연(Demo) 및 시상식이 이어졌는데요.

장광수 원장은 "한국빅데이터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빅데이터의 각계 활용이 보다 본격화하기를 기대한다"며 "다음해는 데이터 데이(day)에서 위크(week)로 확대해 나가고 정보문화의 달이나 정보보호의 날처럼 공식화·제도화도 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2013 국가정보화백서



2013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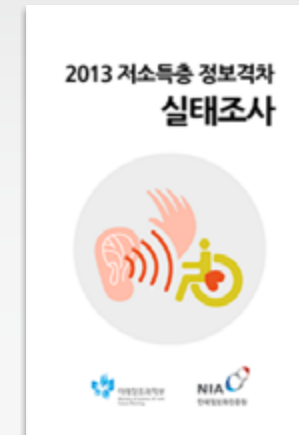
2013 농어민 정보격차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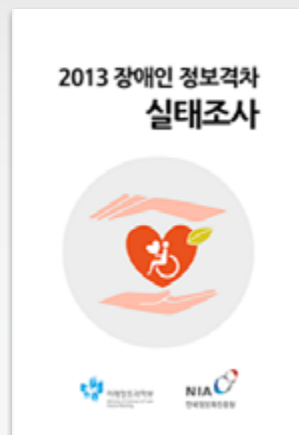
2013 장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3 저소득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3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3 신소외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2013 스마트 시대의 신(新) 정보격차 현황 분석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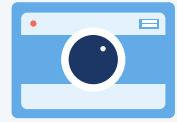


2013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3 정보화통계조사(인포그래픽)





포토앨범 6월 정보문화의 달

제 27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 곳곳에서 진행

올해로 27주년을 맞이한 정보문화의 달은 '연결된 세상, 꿈꿔온 미래,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문화의 달은 1988년 정보문화협의회 발족을 시작으로,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도입일(1967년 6월 24일)과 전국전화자동화 완성일(1987년 6월 30일)을 고려해 매년 6월을 기념월로 지정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서 풍요로운 행사가 진행 되었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ICT로 열어나가는 청소년 Dream 토크콘서트 진행

우리 원은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정보사회의 발전사와 첨단 미래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경남, 경기, 충북, 광주, 제주 등 총 7개의 시·도에서 총 1,450여 명에게 진행한 이번 행사는 ICT 분야 미래 전문가에 대한 꿈을 키워가기 위한 멘토링 및 조언이 이뤄졌습니다.

주요 강연자로는 네오위즈 게임즈 이두희 개발자, 방송인 홍진호 등이 참석해 청소년들에게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만족도 분석 결과 참가전 기대 응답 평균이 0.02% 수준에 그친 반면, 참석 후에는 만족도가 88.98%로 증가하는 등 청소년들의 입맛에 딱 맞춘 행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 27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우리 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7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이 지난 달 9일 COEX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습니다.

창조문화 공유 및 소통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정보문화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시상식과 인터넷상용화 20년·모바일 30년 기념 정보문화 아카이브 전시 등도 진행되었습니다.

정보문화의 달에 대한 역사와 정보를 한 눈에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 | | | | | |
|----------|------|---------|------|-----------|-----------|
| NIA News | 원장동정 | ICT 보고서 | 포토앨범 | 7월 NIA 행사 | 디지털통 다시보기 |
|----------|------|---------|------|-----------|-----------|



웹 접근성 향상 전략 세미나 개최

우리 원은 지난 달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민간 및 공공부문 정보접근성 관련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웹 접근성 향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세미나는 민간이나 공공기관 등의 웹 접근성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상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체적 제약으로 정보화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이, 누구나 정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IT경진대회에는 지난 5월 지역 예선에 참가한 2,661명의 응시자 중 본선에 진출한 408명(장애인 120명, 고령자 168명, 결혼이민자 120명)이 참가해 정보검색과 문서작성, 인터넷활용 능력을 겨루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참가자 중 최연소자는 15세(99년생, 신은경, 장애인부문, 서울), 최고령자는 82세(32년생, 김기선, 고령자부문, 인천)이며, 결혼이민자 부문에는 러시아·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총 9개국 출신이 참가했습니다. 부대행사로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모바일 경진대회를 진행하여 'OX퀴즈', '문자8282보내기' 등 스마트폰 활용능력을 겨루었고, 철가방극장 대표인 개그맨 전유성 씨를 초빙하여 'IT강국 대한민국의 현실과 전유성이 바라보는 IT세상, IT로 함께하는 창조경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시·상담부스(정보통신보조기기, 창조경제, 어르신 IT봉사단)와 체험·휴게공간(치매예방 게임존, 테블릿PC로 그리는 캐리커처, 시각장애인 안마 체험 등)이 마련되어 행사에 참가한 사람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부대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하는 국민행복 IT경진대회는 2003년 장애인·실버 정보검색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2천여 명이 참가하여, 정보소외계층에게 정보화의 동기와 성취감을 고취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2013년까지 26,787명 참가(예선 22,457명, 본선 4,330명), 833명 수상

'6월 정보문화의 달'을 통해 신체적·육체적 제약 없이 재능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웹 접근성이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014년 국민행복 IT경진대회 개최

우리 원은 지난 달 17일 양재 a센터에서 장애인·고령자·결혼이민자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4 국민행복 IT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IT로 함께하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재능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뜻을 펴기가 어려웠던 정보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심어주고, 국민 누구나 정보화를 이뤄나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 | | | | | |
|----------|------|---------|------|-----------|-----------|
| NIA News | 원장동정 | ICT 보고서 | 포토앨범 | 7월 NIA 행사 | 디지털통 다시보기 |
|----------|------|---------|------|-----------|-----------|



July 07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1 | 2 | 3 | 4 | 5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 NET 챌린지캠프(6.30~7.1 / NIA 무교청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지역 인터넷과다사용예방 예술체 협공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구 IT협력단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7.2~3) 한-요르단 정보접근센터 유지보수 협력 MOU 체결 경기북부지역 인터넷과다사용예방 예술체협공연(의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전시회(7.3~4) - 여명학교(여수) 경기남부지역 인터넷과다사용예방 예술체협공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키르기스스탄 정보접근센터 유지보수 협력 MOU 체결 서울지역 인터넷과다사용예방 예술체 협공연 | |
| 6 | 7 | 8 | 9 | 10 | 11 | 12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전시회(7.7~8) -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 제주지역 인터넷과다사용예방 예술체 협공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사랑의그린PC 기증식 - 가양7 종합사회복지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전시회(7.10~11) - 대구 보조기구센터 제31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 전국 대회 목포지역 인터넷과다사용예방 예술체 협공연 해외진출IT기업 실무자 협력채널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개소식(세종 ICT지원센터) 여수지역 인터넷과다사용예방 예술체 협공연 |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전시회(7.14~15) - 경남 장애인종합 복지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전시회(7.17~18) - 제주 시각장애인복지관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보수교육(NIA 무교청사) 한-볼리비아 정보접근센터 유지보수 협력 MOU체결 | |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9기 경기북부, 40기 대전, 41기 광주지역 인터넷과다사용예방 교원직무연수(7.21~25) 2014 신규 정보접근센터 운영요원 초청 워크숍 개최(코스타리카, 벨라루스, 우간다, 온두라스 등 4개국)(7.21~26) | | | | | |
| 27 | 28 | 29 | 30 | 31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기 전북, 44기 부산, 45기 대구지역 인터넷과다사용예방 교원직무연수(7.28~8.1) | | | | | |



디지털통 다시보기

201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2014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